한국안광학회 - 이달의 학술논문 소개

＊본 논문은 한국안광학회지 **제28권 1호(2023년 3월 31일 발행)** 게재 논문으로 저자는 학회의 동의하에 요약 발췌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에 있습니다.

백내장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조사

김스미, 김효진(백석대학교)

목적 : 백내장 유무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삶의 질을 비교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백내장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백내장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 EQ-5D(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 그리고 EQ-5D index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 : 백내장 환자군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3.28±0.96점, 대조군은 3.04±0.94점으로 백내장 군에서 점수가 더 높아 백내장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측정항목인 EQ-5D는 운동능력, 통증/불편, 불안/우울과 관련된 항목에서 백내장 군의 삶의 질이 낮게 측정되었다. 종합적 삶의 질의 지표인 EQ-5D index 값을 비교하였을 때는 백내장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0.87±0.16점과 0.90±0.14점으로 백내장 환자군의 종합적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백내장 환자군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대조군보다 부정적이었고, 65세 이상 고령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종합적 삶의 질 평가에 백내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론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에서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중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로 2018년도에 발표된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에서 다발생 질병 순위에 따른 입원이 2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노년의 삶이 길어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데 특히,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느껴지는 삶의 질로서, 개인 및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노년기의 건강을 축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주관적 건강인식을 들고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이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한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내린 평가 혹은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과 삶의 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HANES)의 제7기 2016년~2018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24,269명의 대상자 중에서 백내장 자료가 없는 자, 65세 미만, 녹내장이나 나이관련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자, 안과 수술 과거력이 있거나 안외상이 있는 자, 우울증이나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신체활동 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그리고, 삶에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암 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 암)를 제외하여 최종 3,47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백내장 이환 설문에서 예, 아니오로 응답한 결과에 따라 백내장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의 인식 정도는 '평소에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매우 좋음'=1, '좋음'=2, '보통'=3, '나쁨'=4, '매우 나쁨'=5의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경우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백내장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유럽 삶의 질(EQ-5D) 설문 결과를 사용하였다. EQ-5D는 건강, 삶의 질과 연관된 운동능력(걷기), 자기관리(옷 입기, 목욕), 일상 활동(일, 집안일, 공부, 여가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집중력, 기억, 일관성)의 5개 영역에 대해 '전혀 지장이 없다'=1, '중간 정도로 지장이 있다'=2, '매우 지장이 있다'=3점의 3개 수준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EQ-5D의 평균과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EQ-5D index는 각각의 건강상태에 대한 가중치를 5개의 EQ-5D 문항에 적용하여 산출된 하나의 지표 점수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로 EQ-5D index 값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결과 및 고찰 -

1. 백내장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의 평균 점수는 백내장 환자군에서 3.28±0.96점으로 대조군의 3.04±0.94점보다 높았고, 이것은 백내장 군의 대조군보다 주관적 건강인식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p<0.001$)(Fig. 1).

Fig. 1. Comparison of mea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between cataract and control group in over 65 years 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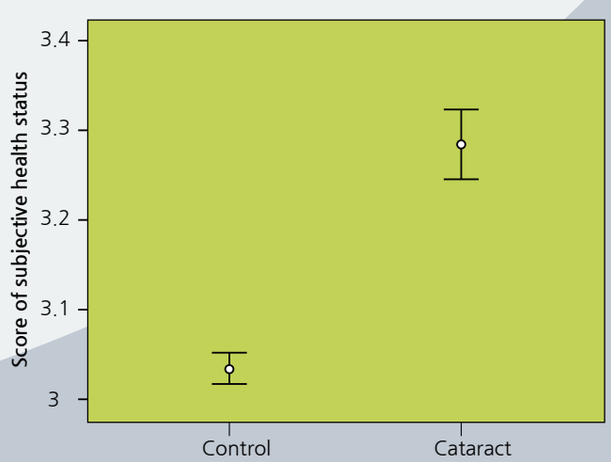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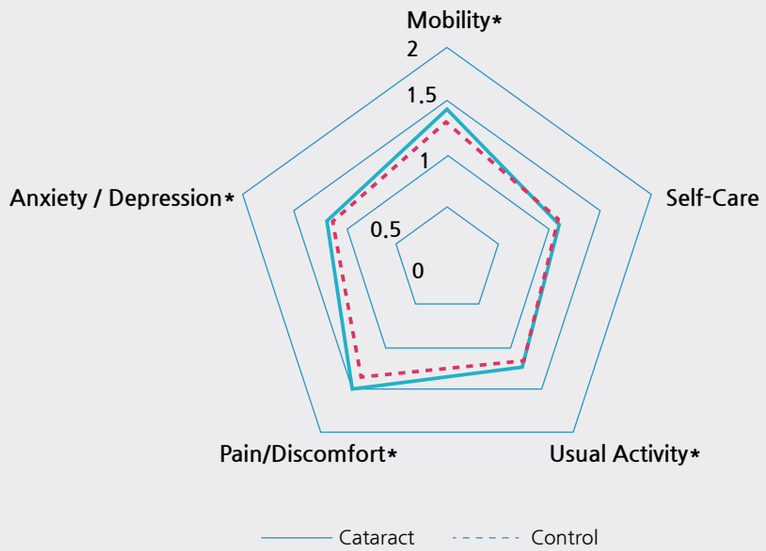


Fig. 2. Score of EQ-5D 5 items in cataract and control groups in over 65 years old (*: p<0.05).



2. 백내장 유무에 따른 삶의 질

Fig. 2에는 두 그룹에서 삶의 질 5가지 항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백내장 환자군은 점선, 대조군은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것이며, 백내장 군은 운동능력과 통증/불편, 불안/우울 항목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Fig. 2).

Fig. 3에는 두 그룹에서 종합적 삶의 질의 지표인 EQ-5D index 값을 비교하였다. 백내장 환자군에서 EQ-5D index는 0.87±0.16점으로 대조군의 0.90±0.14점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낮다고 평가하였다(p<0.001)(Fig. 3).

3. 백내장 환자에서 주관적 건강인식과 삶의 질의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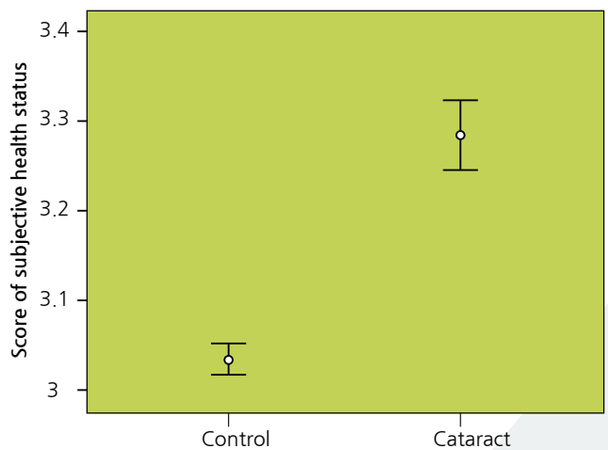
백내장 환자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의 점수와 EQ-5D index 간의 상관계수는 r=–0.548로 주관적 건강인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EQ-5D index 점수가 낮았다. 즉,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도 낮다고 인식하였다(p<0.001). 대조군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r=–0.451로 백내장 환자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 유무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삶의 질을 비교하여 백내장이 65세 고령에서 시각적인 불편함을 넘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백내장은 65세 이상 고령에서 백내장이 없는 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식과 EQ-5D index 값을 낮게 평가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내장 노인의 삶의 질의 영역에서는 운동능력, 통증/불편, 불안/우울과 관련된 부분에서 백내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직 · 간접으로

Fig. 3. Comparison of EQ-5D index between cataract and control groups in over 65 years old (Mean±Standard error)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한 항목으로 최근 임상적 건강 수준과 함께 일반적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주관적 건강인식은 사망에 대한 의미 있는 지표일 뿐 아니라, 건강을 측정하는 의학적 지표보다 오히려 대상의 건강상태는 물론 복지상태와 삶의 질 등이 폭넓게 측정된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건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백내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주관적 건강인식을 대조군과 비교하였고, 백내장 노인들은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집단에서 취약 대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이러한 노인 대상의 주관적 건강인식 결과는 고령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의료 관련 개선사항이나 공공서비스 자원을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백내장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EQ-5D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인식과 같은 개인이 인지한 신체적 건강인식을 지속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백내장 환자의 삶의 질에 관련된 단면연구로 조사 시점에서의 백내장과 삶의 질을 측정해 본 것이므로 이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활동 수준, 그리고 신체활동 수준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이 자료는 원자료의 한계로 연령이 80세까지 국한되어 있고, 질병력에 대한 자기기록 방식의 결과를 이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한국 백내장 노인의 삶의 질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백내장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겠다.

논문 원문보기 : 한국안광학회 홈페이지
http://www.koos.or.kr 또는 https://koos.jams.or.kr